

5월 8일 (수)

■김영일 '회심곡 2002공연' =세종문화회관은 오후 3시 심청의 효심을 주제로 한 '회심곡 2002' 공연을 마련했다.

12일까지 계속되는 이 공연은 회심곡의 대가인 김영일 경기명창을 통해 애절하면서도 맛깔스러운 회심곡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02)786-8886

5월 11일 (토)

■여수 석천사 '티베트 사진전' = 사진 작가 이상원 씨의 티베트 사진 전시회가 석천사 주최로 여수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티베트 사원과 스님, 티베트인의 생활풍습 등을 담고 있는 이번

신행 캘린더

사진 전시회를 통해 티베트 불교의 모습을 확인해 보자. (061)662-1607

■웅진신행회 '성지순례' =입진왜란 때 서산대사의 승병 흥본영이 있던 곳으로 유명한 대둔사.

의심·삼우·도안·영우 등 선사의 강백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신심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 출발은 오전 7시 울지로 6가 국립병원 앞. (02)2278-1191

5월 12일 (일)

■심곡암 '산꽃축제' =심곡암은 오후 1시부터 심곡암 경내에서 사부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산사음악회와 사진전시회 등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해 열린 제1회 산꽃축제.

노래하는 스님 심진·진명 스님과 장사의 씨 등이 초빙된 음악회. 북한산 심곡암 인근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담은 사진작가 전제우 씨의 사진 전시회는 모든 불자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02)914-8860

■전북불교대학 '부처님그리기대회' =전북불교대학은 오후 2시 전주 완산동 정혜사에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의 부처님그리기 대회를 마련했다.

대상과 우수상 등을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상금도 수여된다. (063)226-7878

■터사랑 '성지순례' =성주사는 신라 구산선문 중 하나로 신라 고승 낭해화상과 최치원 등의 사적이 얽혀 있는 곳. 그 천년 고찰의 자취를 더듬고, 바닷길이 열리는 것으로 유명한 신비의 무장포갯벌도 함께 볼 수 있는 여행.

터사랑과 떠나는 이번 여행의 출발은 오전 7시 30분 안국역. (02)722-9747

5월 15일 (수)

■귀일스님 '기와 그림전' =기와 위에 불보살 그리기를 통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귀일스님. 스님이 3년 동안 그린 불화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28일까지 서울 인사

동 가나아트홀에서 열린다. 잡귀를 몰아내는 도깨비 얼굴을 그린 귀면, 동종, 사리탑, 비천상, 불보살 등 60여 점의 선보일 예정이다. (02)734-1019

5월 16일 (목)

■운덕경무용단 위빠사나 주제 창작무용공연 =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 주제의 창작무용공연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청주 서원대 무용학과 운덕경 교수는 저녁 7시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고요한 시간, 깨달음-위빠사나' 주제로 창작 무용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일상생활 속에 바쁜 현대인들이 위빠사나 수행 특유의 느린 동작을 통해 '느림의 미학'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043)299-8950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포교도 수행이다

5월-전법의 달

- 전법의 공덕
- 포교도 수행이다
- 온 가족이 '포교사'
- 누구나 전법사



◇경기불교문화원 권중서 사무국장이 여주 신륵사를 찾은 학생들에게 사찰에 깃든 불교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 범일동 밝힌 '조방연등제'

자유·평화시장·보석상가 불자상인들 6번째 행사

시장번영회 가세 축제 자리잡아 청각·언어장애아들 연주 눈끌어



◇이두선, 강홍자, 장일선, 서분선(왼쪽부터) 보살이 부산 자유시장 앞에서 공무과 직원과 함께 연등을 달고 있다.

대규모 도매시장 상인들이 주축이 된 연등축제인 '조방연등제'가 3일 환하게 불을 밝혔다.

부산 범일동 일대를 환히 밝히는 연등 점등식과 함께 시작된 조방연등제는 자유시장, 평화시장, 보석상가의 불자상인을 주축으로 타종교 상인들까지 참여하는 행사로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조방연등제는 범일동 시장 일대의 옛 명칭인 '조방'에서 유래한 것.

시장 발전을 기원하고 부처님 오신 뜻을 널리 퍼졌다는 몇몇 상인들의 원력으로 시작된 조방연등제는 해를 거듭할 수록 인근의 약불사, 부

산불교방송, 부산불교신문, 한빛은행 불자회 등이 뜻을 모으면서 부산 범일동 일대의 축제로 자리잡았다.

2천5백여 점포 상인들이 밀집한 상가 건물과 현대백화점 앞 대로변 등 주위를 밝히는 연등의 숫자만 3천 여 개. 또한 조방연등제 행사 진행과 불우이웃돕기에 필요한 성금을 내며 동참하는 상인들은 6~7백명에 달할 정도.

특히 올해는 조방연등제를 위해 결성된 조방연등회 조직이 한결 탄탄해졌다. 정각스님과 해륜스님을 고문과 지도법사로 모신 가운데 시장의 대표 기구인 시장 번영회가 적극 나섰다

때문이다. 번영회가 힘을 보태면서 앞으로 조방연등회는 조방연등제의 예도 지속적인 범포화운동과 봉사활동을 펼쳐겠다는 각오다.

주위를 환히 밝힌 연등 불빛 아래서 진행된 조방연등제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성우원 청각·언어 장애아들의 연주회. 10여명의 장애아들이 들려주는 연주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일깨우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봉축의 기쁨을 나누는 감동의 무대로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이날 상인들의 전조금으로 마련된 성금으로 농어들의 약 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으며 연등부착 작업을 도와준 시장 공무과 직원들에게 부산불교신도회의 공로패가 전달됐다.

조방연등제를 맨 처음 발의한 장일선 수석부회장은 "내년에는 노래자랑, 특강대회 등 좀 더 다양한 문화행사로 시민들에게 불법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불자가 해야할 첫 덕목

포교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이다. 살아있는 진리의 전파를 포교라고 할 때, 포교행위는 곧 종교의 끊임없는 자기 갱신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포교는 적극적인 실천을 수반하는 수행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경기불교문화원 권중서(47) 사무국장은 선방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것만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장에서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포교가 더 적극적인 수행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권 국장은 사람들이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도소로, 거리로, 사찰로 찾아 다닌다. 여주교도소 수용자 포교, 신륵사 사찰 안내 봉사, 재가 불자를 위한 경기불교문화원 건립 지원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보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저함 없이 나서고 있다.

"포교는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 과정을 거치는 수행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동사설의 실천을 보여줄 때 포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최복천(64) 포교사는 68년부터 불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 평소 108배는 물론 경전 강독, 참선, 염불 등 개인적인 수행에 전념해 왔다. 동시에 5계를 범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최 씨는 장의 염불 봉사를 벌이는 포교사가

됐다. '부처님 일대기를 꿈꿨던' 생각해보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포교였습니다. 45년 동안 포교를 수행으로 삼았던 부처님의 삶을 이해하고는 포교사가 되기로 결심한거죠."

최 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불자들이 행해야 할 첫 번째 덕목으로 꼽는다. 포교야말로 불교도를 이루는 절경이라는 확고한 믿을 때문이다. 최 씨는 포교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했다. 아내는 물론 두 아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로 교화했다.

97년부터는 장의염불 봉사를 통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최 씨는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몸소 실천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제가 여전한 포교가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포교는 생명력을 잃고 만다. 수행을 전제로 하지 않은 포교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한 가지로 '포교' 없는 종교 또한 공허하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진리란 화해와 다툼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포교의 길을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박봉영 기자

"거사는 사회발전의 주체" 인식을 "왜곡된 한국불교현실 극복해야"

거사운동방향 토론회

전국적으로 많은 사찰내에 거사회가 조직되어 신행을 펼치고 있지만, 거사법회가 다양한 프로그램 없이 단순 반복되는 법회만으로 유지되는 것은 이른바 '치마 불교', '기복불교'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사찰의 거사회가 거사운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모았다.

수원포교당거사회(회장 진철회)는 4월 30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에서 '제2회 거사회 발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호림스님(보광사)은 기초법문을 통해 "거사불교는 그동안 해 온 신행형태의 고정관념을 탈피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신행단

체의 운영도 주5일제 근무에 맞춰 인격수양과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위지 한국대 교수는 법제를 통해 "거사는 단순히 승단에 대한 보조적인 기관이 아니라, 승단과 화합해 불교는 물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연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거사불교운동의 방향은 이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펴고 동시에 왜곡된 한국불교의 현실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질곡을 극복하려는 데 모아져야 한다"며, 재가불교운동 활성화를 위한 물적 자원 확보, 인적 자원의 재생산, 출자자의 도덕성과 재가자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룬 불교운동 등을 제안했다. 김재경 기자



◇한마음선원이 1일 대구지원 준공법회에 앞서 테이프 절단식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성우, 지성, 원명, 혜원, 혜계 스님.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법당 준공식

조계종 한마음선원(원장 대명스님)은 1일 원명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성우스님(파계사 주지), 혜원스님(한마음선원 본원주지)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원(지원장 혜계) 준공법회를 가졌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명스님은 법어를 통해 "새 법당 건립으로 대구 경북지역에 불법이 널리 흥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준공법회는 한마음선원 대구

지원 다도회의 육법공양과 원명스님의 법어, 지성스님(동화사주지)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3년 6개월간의 불사 끝에 연건평 750여평으로 지어진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불교적 전통미와 현대적 실용성이 접목된 건물로서, 대구 도심지역의 신행공간으로서 임의를 담당하게 된다.

대구=고영배 기자

삼광사, 첫 연등만들기 대회

15지역회·11개 신행단체회원 1천명 참가

4월 30일 천태종 삼광사(주지 도원) 지관전에서는 삼광사의 전체 신도조직이 참여한 제1회 연등만들기 대회가 열려 이색경이 연출됐다.

지관전을 가득 채운 15개 지역회와 11개 신행단체의 회원 1천여명의 신도들은 저마다 진흙에서 핀듯한 청초한 연등을 만들기 위한 손짓으로 분주했다. 특히 이날 연등만들기 대회에 앞서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연등만들기 시범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은 "연꽃의 청정한 마음으로 전 신도들이 한마음을 한뜻이 되어 부처님 오신 참뜻을 되새길 수 있도록 연등만들기 대회를 마련했다"며 참여한 신도들을 격려했다. 앞으로 삼광사는 연등만들

기 대회를 삼광사만의 독특한 봉축 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해 창작등 만들기, 전통등 만들기, 가족등 만들기 등 대회 운영방법이나 참가 분야 등을 보다 다양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봉축 상징물 점등식

부산역광장 500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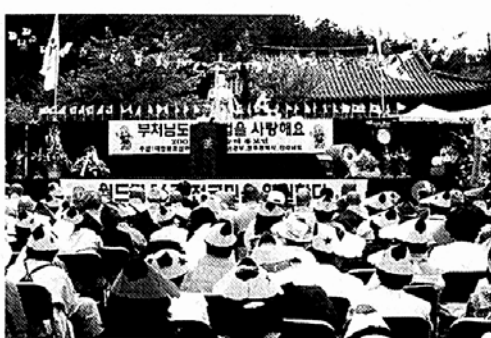
부산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오)는 2일 부산역 광장에서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상징물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부회장 도원스님, 안상영 부산시장,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을 비롯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돌보기 증정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제21대 총학생회(회장 양성훈)는 4월 28일 서울 종로3가 주요공원을 방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돌보기 안경을 무료로 증정하는 현장봉사활동을 가졌다. 불교대학원 제21대 총학생회는 어르신 2000명분의 돌보기안경과 떡, 음료수를 준비했다. 선무도 경기본원(원장 김연성 포교사)의 선무도 시범공연에 앞서 양성훈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선각종 월드컵승려홍보단 회향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4월 28일 강원 울진에서 종단 차원으로 벌여온 월드컵 승려홍보단 및 성공기원 쉼터인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정암스님, 김두원 광주·전남 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했다. 법회에 앞서 열린 산사음악회에서는 가수 김홍국 씨와 국악인의 공연이 마련됐다. 총무원장 정암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주용경 광주지시장

미륵종 자비포교원 개원법회



한국불교 미륵종 자비포교원(주지 영성)은 4월 29일 종단 간부스님 및 신도 1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송정스님은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법회와 행사로 불심의 도시 부산에 어울리는 도심포교당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미륵종 간부스님들이 개원식에 앞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회주는 본가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서울 종로구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평창동 46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곤